

국제유가, 기초유분 생산가격 압박

한은, 2월 화학제품 생산물가 2.5% 상승 ... 석유제품도 2.8% 올라

국제유가 및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석유제품 및 화학제품 생산자가격이 오르면서 2월 국내 생산자물가 상승을 견인했다.

한국은행에 따르면, 2004년 2월 공산품 생산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화학제품(2.5%) 및 석유제품(1.5%) 이 오르고 금속1차제품(7.2%)과 전기기계장비(2.5%) 등도 올라 전월대비 1.7%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.

화학제품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료 가격상승으로 P-X(Para-Xylene) 가격이 11.7% 올랐고, 에틸렌이 9.8%, SM(Styrene Monomer)이 7.9%, 프로필렌이 7.2%, M-X(Mixed-Xylene)가 5.8% 등 거의 모든 품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전월대비 2.5% 상승했다.

석유제품도 나프타 가격이 10.6%, 등유가 1.3%, 경유가 1.2%, 휘발유가 0.9%로 전체적으로 1.5% 올랐다.

생산자물가 등락률(2004.2)

(단위: %)

구분	등락률	주요 품목
석유제품	1.5	나프타(10.6), 경유(1.2), 휘발유(0.9), 등유(1.3)
화학제품	2.5	에틸렌(9.8), SM(7.9), P-X(11.7), 프로필렌(7.2), M-X(5.8)
금속1차제품	7.2	열연광폭대강(16.9), 중후판(14.8), 일반철근(11.1), 나동선(23.3)
전기기기/장비	2.5	전력케이블(6.0), 에나멜동선(10.0), 교류전동기(10.1)
전자제품/전신장비	▽0.7	TFT-LCD(-1.7), 휴대폰(-1.6), D램(-4.1)

† 전월대비

또 금속1차제품은 고철 및 비철금속 등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열연광폭대강, 중후판, 일반 철근, 나동선 등을 중심으로 7.2%, 전기기계 및 장비는 전력 케이블, 에나멜동선, 교류전동기, 절연전선 등이 2.5% 각각 상승했다.

그러나 전자제품 및 전신장비는 환율하락 및 수요감소로 TFT-LCD, 휴대폰, 산업용 브라운관, D램 등이 전월대비 0.7% 하락했다.

<Chemical Journal 2004/03/08>